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마 15:29-39)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 오시자마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을 치유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사 53:4)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곧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30절).

그 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힌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면서 기도해주시며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이루 시려는 회복의 시작일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회복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뤄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32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병을 고쳐주시던 주님께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무리들은 사흘 동안 먹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 배고픔을 참을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해 쓰러질까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몹시 걱정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에 축사하시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므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으며 운수대통한 일들만 생긴다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에서 시험과 걱정과 무거운 짐으로 때때로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에게서만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Jesus is the Key

(Matt. 15:29-39)

Upon turning back to Galilee, Jesus taught people and healed the disabled, the blind, and the mute. Jesus came to the world to teach the word, spread the Gospel, and heal people in His three works..

Matthew proved that the prophet Isaiah's prophecy had been achieved about Jesus healing work, as "Surely he took our infirmity, and bore our sickness" (Is 53:4).

Our Jesus Christ's redemption from death on the cross is not only a spiritual salvation but also physical weakness, in other words, healing the sick.

And now, there is a part to take a notice in the text.

"Great crowds came to him, bringing the lame, the blind, the crippled, the mute, and many people and laid them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v. 30).

On that day those who had been healed were not all the people but only those who sat at the feet of Jesus. This proves that all people who had been there were not healed, but those who were brought to Jesus and sat at his feet were healed. What does this mean? Simply, he did not heal them with words, 'You are all cleaned,' but he touched them one by one, prayed, and healed them.

The reason why he came to the world is to recover the first thing that we lost by Adam's sins. But Jesus' coming to the world is a recovery but wasn't an accomplishment. Such all accomplishments can be achieved on the day when Jesus Christ will come again, or at the moment when we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said, 'I have a compassion for these people; they had already been for three days and have nothing to eat I do not want to send them away hungry, or they may collapse on the way.'" (v.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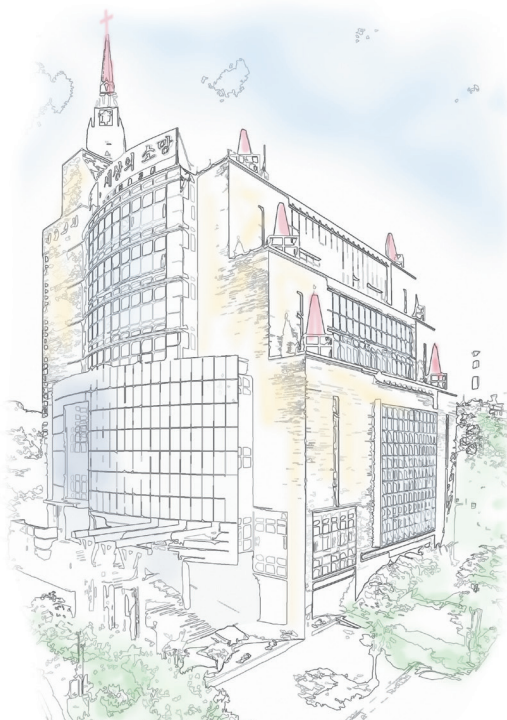
Jesus who had compassion for crowds and healed them had a source of worry again. They did not eat anything for almost three days. While they were in joy and were moved together with Jesus, they could endure their hunger, but Jesus worried very much that they might be exhausted, and collapse on the way back home. And just like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Jesus gave thanks to

God for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fed them.

My beloved Christians,

Because Jesus is living and has compassion on us, he heals our illness, and fills us with necessity. Nevertheless, you never make a mistake just like the following words: if we believe in Jesus, we don't get sick, and can get an extremely good luck. And there, in the midst of the beginning of salvation and the process of accomplishment, though we might sometimes have a difficulty due to the worldly trial, the troubles, and heavy burdens, you should never forget that you come before Jesus who has compassion on us, and by sincerely praying you will receive Jesus righteousness.

Only Jesus is the key in our lives. By praying earnestly with the faith of which we believe in Jesu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and I will get the answer for all problems from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 파송식

##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 시 / 출발: 8월 9일(토)

201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단(단장: 김형상 집사)이 8월9일(토)에 선교사역지 방글라데시로 떠난다. 오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마치고 9일(토)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성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 참가자 26명 명단)

- 지도: 황 광 목사 · 단장: 김형상 집사
- 부단장: 김광태 집사 · 고문: 오정수 장로 하인선 장로
- 총무: 박종권 집사 · 서기: 이영숙 권사
- 회계: 송행희 집사
- 지원팀: 이영희 권사 최종희 권사 최금숙 권사
- 이미용팀: 김필임 권사 김영옥 권사 문옥일 집사
- 어린이팀: 최근우 김예지 박은영 홍하림 황신혜 박민수
- 의료팀: 김봉배 집사 정현구 집사 백승경 집사 박연경 정일운 조수호

### - 단기선교단 기도제목 -

1. 방글라데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온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 현지 선교사인 조남해 선교사님, 박진영, 김미성 선교사님, 스브로도 바로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단기선교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3. 단기선교사들이 영혼구원의 열정을 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4.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진행되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 말라리아, 뎅기열, 간염, 배탈 등 풍토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여 강건한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6. 항공기와 현지 교통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며,

- 무사한 출입국 통관 등 모든 사역지에서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공급하옵소서.
- 7. 단원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혼연일체의 협력을 하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 없게 하옵소서.
- 8. 만나는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 9. 사단의 유혹과 함정을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 10. 선교준비와 교육과정이 마음을 쏟는 기도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 잘 훈련되고 철저히 구비된 능력 있는 선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2014년 2학기 장학생 선발

### 오리엔테이션: 오늘 오후 4시 / 장학금 수여식: 오늘 찬양예배 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2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53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성장해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대학부)**  
권보화 김성은 김세준 김재은 박선영 박소혜 박연경 박정범 배상은 신도빈 오상협 이다솜 이상휴 이성화 이소현 이혜진 임이랑 장지윤 전미정 제연주 최서원 최선진 최현진 홍남명 (24명)
- 고등부**  
강예선 김은호 남유라 박동아 이선민 정하은 (6명)
- 디아스포라부**  
권영숙 김혜경 박효진 이명학 정은희 조영금 최아라 최현화 홍지아 (9명)
- 교역자 선교사 자녀**  
김노수 김예나 김예림 김하은 우하은 이준형 이평화 정에스터 조라빈 조라혜 황신혜 (11명)
-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노다은 류근휘 이종석 (3명) 총: 53명

## 금주의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 소망부: 8월7일(목) 10시30분 101호 / 청년1부·2부: 8월 12일(화)~16일(토)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청년1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소망부	8/7(목)	서울교회	아름다운 동행	박노철 목사

### 신앙강좌반 개강

#### 강사: 원종천 목사 오늘 12시 40분 / 601호

하반기 신앙강좌반(부장: 진교남 집사)이 8월3일(주)개강한다. 원종천목사를 강사로 601호 에서 12시 40분에 시작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나눔의 집

오는 8월 9일(토)에 떠나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과 8월 12일(화)에 떠나는 청년부 국내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져갈 옷을 나눔의 집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의류와, 신발, 소형 가전 등을 깨끗이 손질하여 보내주세요.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9)**  
(문 139) 이사야서의 통일성을 위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답) 사 6:11-13은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던 때(대략 739 BC)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부름 받고 진리에 대적하는 백성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주여 어느 때 까지 임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여 질 때까지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후 587 B.C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6장은 8세기 때 이사야의 글임이 확증된 것입니다.

13절에서 포로의 남은 자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솔로몬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 백성의 종말이 아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서 3절 후(7:3)에 이사야 만아들 스알아숨이 나옵니다. 이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 6:13말씀은 소위 제2이사야 이론을 파괴시키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할 것입니다. 8세기 히브리 예언자가 587 B.C와 539-537 B.C사건을 예언하거나 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 40-66장은 포로이후 작품으로 보는 견해에 결정적 반증을 할 수 있는 내증이 있습니다. 1장과 5장에서 악을 슬퍼함과 규탄하는 것은 소위 제2이사야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사상입니다. 1:15와 59:3, 7을 10:1-2와 59:4-9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뭉서리나는 종교적 위선이 민족적으로 있습니다. 29:13과 58:2, 4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0-66장에 우상숭배의 악이 있습니다.(57:4-5) 그것은 1:29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높고 거친 언덕이 있는 산악지대는 바벨론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41:19, 44:14에 있는 나무들도 바벨론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40-66장은 바벨론에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0-66장은 예루살렘 몰락 후 레바논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바벨론 멸망 후 유다에서 기록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도 이미 반증된 낡은 이론일 뿐입니다. 특히 신약성경과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를 자주 언급하시면서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 12:17-18은 사 42:1을 인용한 것인데 그때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 3:3에서 사 40:3을, 눅 3:4은 사 40:3-5을, 행 8:28은 사 53:7-8을, 롬 10: 20은 사 65:1을 요 12:38-41은 사 53:1과 6:9-10을 각각 인용하였는데 그때마다 이사야의 말씀(글)이라 했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우리 주님이 오류가 없는 한 제2이사야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떠나며

# 예수님이 찾으시는 방글라데시 영혼들



**황 광 목사**  
(단기선교 지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고 8월 9일(토) 이제 방글라데시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들이 어두운 조선 땅 구석 구석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무지한 백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질병을 치료하며 예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빈민 농촌 지역인 하종족마을에서 의료선교와 이미용선교 어린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태양광 점등식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 영화 선교사역, 학교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작업과 교회예배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수리할 것입니다. 하종족마을을 떠나 오는 날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에는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있는 다카 장로교회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선교와 이미용사역,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선교단을 2개조로 나누어 조남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소망호스텔과 다카 인근지역 칼바이트 마을에서 의료선교와 이미용사역, 어린이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15일 오후에는 서울교회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만나 서로 간의 선교정책을 나누고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 기간 중 대원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라리아, 파상풍, 장티푸스, A형간염, 뎅기열 등의 풍토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비록 칠 일간의 여정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떠나 방글라데시 땅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김봉배 집사**  
(의료 팀장)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는 평소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향한 출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마주하면 어느새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리라 기대하며 그곳의 메마른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마음은 부풀어 오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모든 순서 순서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약품과 의료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여러 제약회사의 협찬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더할 수 없이 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에 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치유 계획에 동참할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아프고 지친 환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이나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장차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진행되고, 오고 가는 중에 풍토병이나 어떠한 위험에도 처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의료진료를 기다리는 방글라데시 현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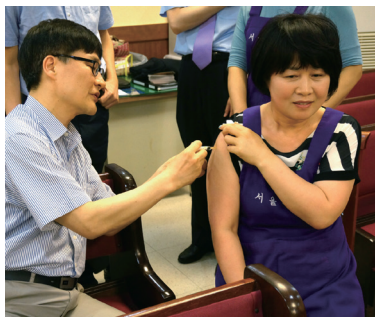
아픈 아기를 안고 새벽부터 기다리는 여인



야사 공부방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받으며 단기선교를 준비하다



5월 24일(토) 첫 모임을 갖고 단기선교 준비를 시작하다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교육과 워업연습을 하다







핸드벨세계대회에 참석하며

제12회 세계핸드벨대회전경

# 예수님의 자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윤걸 집사**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핸드벨은 하나의 벨이 만들어 내는 청아하고 영롱한 공기의 울림을 여러개의 같은 벨들이 만들어 낼 때 강렬하면서도 때로는 묵직한 가슴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기입니다.

하나의 곡을 한두명이 아닌, 한두팀도 아닌 600여명이나 되는 핸드벨 연주자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전세계 핸드벨 링어(ringer)들의 축제인 '핸드벨 세계대회'(International Handbell Symposium)가 '세계 핸드벨 협회'(International Handbell Committee)가 개최하고 '한국 핸드벨 협회'(Korean Handbell

Association)가 주최하는 가운데 8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핸드벨대회는 1954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서 '핸드벨협회'가 결성된 후 1984년에 미국 알카타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3개국 이 모여 제1회 핸드벨 세계대회를 비공식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핸드벨팀들은 있었지만 협회 구성이 되지 않았던 한국은 당시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시무하고 계시던 할렐루야 교회의 주도로 1985년에 한국 핸드벨 협회를 창립하고 1986년 일본 고텐바에서 열린 제2회 세계대회에 23명의 연주자들이 한국 대표로 참가 하면서 세계 핸드벨 협회와의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 창단한 서울교회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는 2010년 지휘자 송재월 집사와 2명의 단원들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14회 핸드벨 세계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휘자 송재월 집사를 비롯 11명의 단원들이 '서울교회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의 이름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는 이때에 한국을 대표하는 핸드벨팀 중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람이 되기 원하는 서울교회 그레이스 핸드벨 단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과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일(화) 미래한국 8기 편집위 출범회 및 편집위 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한국군선교연합회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 8일(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 제1회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 교역자 휴가: 박영준 목사(8.5-6) 대령 유문건 목사 배경애 전도사(8.5-7) 대령 장석남 목사  
■ 이사: 8교구 김대호 장로 남순덕 권사 가정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78번길64 031)772-9712

■ 주일식당봉사: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8.3) 웰리아선교회 뽀뽀전도회(8.10)  
■ 금주의 식사 제공: 박상훈 집사 이해원 성도 가정 (결혼 감사드림)

## 나의 하나님

#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Bynayak Bhandariand , Prathiba Bhandari**  
(영어예배부)

비나약(한국명: 반석) 과 프리티바 부부는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감사와 기쁨을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님의 소개로 서울교회를 소개 받아, 영어예배부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초 저는 아내 프리티바와 결혼하고, 장래에 대한 별 계획 없이 그를 한국으로 데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기쁨과

저(비나약)는 2007년부터 서울교회 영어예배부에 출석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의 명망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비나약은 2014년 2월에 서울대학교에서 기계 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아내 프리티바는 금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2007년 석사학위 공부를 위해 명지대학에 유학 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외국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한국말을 몰랐기에 사귀는 친구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

슬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또 물질적, 정신적 후원과 가정심방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서울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 저희는 복 받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영어 예배부 성도님들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금년 초 하나님께서는 우리부부에게 이곳 한국에서 아들 에벤에셀이 출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영어 예배부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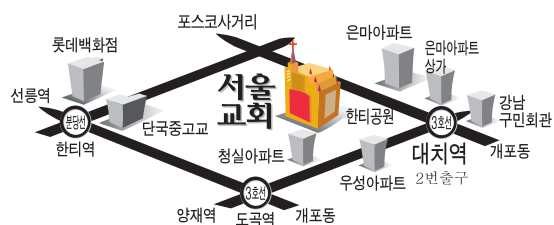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주에 있는 청년 1부와 2부의 국내선교 수련회와 소망부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2. 이번주 토요일에 출발하여 16일 귀국하는 방글라데시 비전트립팀이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3. 서울교회 장학생들이 신앙훈련과 학업훈련을 잘 받아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시흥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